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자랑한다면?

장 미 나-4학년

제 생각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착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우리 가족은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가지만 무슨일이 생겨 못가게 되면 꼭 인터넷 예배라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가족을 보시고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성경통독반에 들어가 한 해 동안 성경통독을 했어요. 엄마, 아빠 말씀이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성경 한번 통독을 못한다는데 제가 벌써 한번 통독을 하게 되었다고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올해에는 성경 암송반에 들어갔고, 매주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어렵지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모르던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되서 좋았어요. 그리고 어린이 성가대 봉사도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 때 친구들 앞에서 찬양하는데 혼자 부르면 좀 부끄러웠을텐데 친구들과 같이 부르니 재미있고 좋았어요. 저는 매일 밤 자기전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그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감사한 일들을 말씀드려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지난주에는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5년동안 기른 제 머리카락을 기부했어요. 제가 벌써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참 뿌듯했어요. 그리고 역시 엄마, 아빠가 절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남을 먼저 생각해요. 한번은 우리가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 트렁크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주차장에서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가게에서 잔돈을 많이 준 점원에게 돈을 돌려주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실천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때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셔서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차 세울 자리를 양보 받기도 했어요.

우린 다른 사람들과 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모두 가족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착하고 남을 배려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요. 이렇게 우리 가정은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